

# 조선후기 대외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 국내 대일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

심 민 정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目 次

I. 머리말

II. 대일외교

III. 대일무역

IV. 왜관

V. 통신사

VI.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후기 부산과 관련한 대외관계는 대일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대일관계는 三浦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의 왜인 접대 관청인 東平館에서도 분담하여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己酉約條가 체결되면서 조선 후기 대일관계의 중심은 부산포 한 곳으로 한정되었다. 기유약조의 조문은 다 들기 어렵지만, 왜관의 접대·세견선·문인·수직인 등에 대한 규정들이 정해지게 되었고, 13조 중 9조에서는 ‘문인이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배를 대는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서도 보이듯이 부산지역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대일관계 관련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성과물들을 쏟아내고 있고, 최근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경인문화사, 2005)<sup>1)</sup>를 발간하여 대일관계의 핵심인 통신사 및 왜관과 관련된 연구자들을 정리·종합한 성과물을 내기도 했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하는 연구성과물들 외에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부산관련 사료 현황도 「부산의 지방사연구현황」(홍연진, 1991)<sup>2)</sup>에 소개되어 있으며, 대일관련 사료

---

1)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2) ‘洪淵津, 「부산의 지방사연구현황」, 『항도부산』, 1991’에 부산지역 관련 사료 현황이 소개되어 있다. 『東萊府事例』(1963), 『接待倭人事例』(1964), 『東萊府啓錄』上·下(1964), 『동래부지』, 『동래부접대등록』, 『초량객사중수등록』, 『倭人求請啓錄』(2004~2005) 등이 영인 또는 번역되어 간행되었다.

에 대한 소개도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의 소개」(손승철, 2002)<sup>3)</sup>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대체로 국내에서의 한일관계 연구 성과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1960년대 이후의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사를 정리하려 한다. 물론 한국전쟁 이후 1960년 이전까지의 연구 성과도 있지만<sup>4)</sup> 매우 소략하고, 어느 한 주제만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연구의 흐름상 1960년 이후의 성과들이 대일관계의 형태나 성격을 보여주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각 주제별 연구 성과를 보더라도 대부분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는 1960년대 이후가 되면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지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연구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다양화·세분화 되는 경향이 있다.

부산지역과 관련하여 대일관계를 돌아보면, 지역이라는 좁은 시각에 앞서 전체적인 틀에서 외교체제와 인식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도 대일외교를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했다. 또한 당시 교류의 중심이 되었던 부산 지역이 대일무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밝혀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일본인들이 항시 거주하고, 일본과 관련한 사신의 파견·접대 및 외교문제 해결, 무역 등의 주 무대가 되었던

3) 孫承喆,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의 소개」, 동경대학 사료편찬소주관 국제심포지움 발표집, 2002.

4) 조선후기 한일관계 연구는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에 의해 먼저 진행되어 ‘松田甲, 『日鮮史話』 1~6, 조선총독부, 1926~30;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工政會出版部, 1930; 中村榮孝, 『江戸時代の日鮮關係』, 岩派書店, 1934’ 등의 단행본이 나왔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전쟁이후 ‘이현중, 「李朝倭館略考」, 『成均』 7, 1956’ 등의 연구가 있다.

왜관관련 연구도 계속된 논제거리에서 빼 놓을 수 없다. 또한 부산을 거쳐 파견된 사신들에 대한 연구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히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통신사 연구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외에 특정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 주목받지 못한 부분도 외교체제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겠다.

대일관련 연구는 국내연구 뿐 아니라 국외연구, 특히 일본 현지에서의 연구가 방대한 분량을 가지기 때문에 일본학계의 모든 연구를 총 망라해서 연구현황을 기록하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국내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대일외교

조선 후기 대일관계에 대한 고찰은, 국가 중심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외교가 이루어졌던 현장인 부산에서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전기에는 부산 뿐 아니라 제포·염포를 포함한 삼포에서 일본 사신들의 접대가 이루어지고 중앙의 동평관에서 접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산의 중요성은 후기보다 덜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일본인의 상경이 금지되고, 일본과 관련된 외교 업무도 부산지역 한 곳으로 집중되어 그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해 두고 조선후기 일본과 관련한 외교관계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관계의 성격에 따른

시기구분일 것이다. 조선 후기, 즉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구분은 그 입장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원순·하우봉은 조선 후기의 외교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통신사의 파견과 관련하여 구분<sup>5)</sup>하고 있으나, 손승철은 교린체제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전체를 中華體制와 관련하여 네 시기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sup>6)</sup> 반면 일본학자인 三宅英利는 일본의 상황을 기준으로 조선 후기를 ‘국교재개기, 전기안정기, 변혁기, 후기안정기, 쇠퇴기’의 5시기로 구분하였다.<sup>7)</sup> 대표적인 학자들의 시기구분을 조선 전기부터 파견되었던 통신사 파견시기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통신사 파견에 따른 시기구분

| 파견연도 | 孫承詰                                | 三宅英利                  | 李元淳 | 河宇鳳 |
|------|------------------------------------|-----------------------|-----|-----|
| 1413 | 조선전기<br>(1392-1592)<br>中華的<br>交隣體制 | 무로마치막부에<br>파견된<br>통신사 |     |     |
| 1429 |                                    |                       |     |     |
| 1439 |                                    |                       |     |     |
| 1443 |                                    |                       |     |     |
| 1460 |                                    |                       |     |     |
| 1479 |                                    |                       |     |     |
| 1590 |                                    |                       |     |     |
| 1596 | 임란직후                               | 도요토미정권에<br>파견된        |     |     |

5) 河宇鳳, 「조선후기 한일관계에 대한 재검토 - 사절왕래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동양학』, 1997에서 이원순과 같은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6) 손승철은 교린체제의 성격을 중점으로 하여, 통신사를 조선전기(1392-1592), 임란직후(1607-1635), 조선후기(1636-1810), 개항전기(1811-1872)로 구분하였다.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7) 국교재개기란 回答兼刷還使라고 칭하는 신사를 파견한 초기 3회에 걸친 시기를 말한다. 전기안정기란 ‘柳川一件’ 후에 덕천정권의 조선외교형식이 제정된 1636년, 1643년, 1655년 1682년의 통신사를 포함하며, 변혁기란 新井白石에 의한 통신사 제도개변이 있었던 1711년의 통신사를 가리킨다. 후기안정기란 1719년, 1748년, 1764년을 말한다. 쇠퇴기란 대마에서 역지병례한 1811년 사행을 가리킨다.

|        |                                     |         |                                       |                                     |
|--------|-------------------------------------|---------|---------------------------------------|-------------------------------------|
|        | (1607-1635)                         | 통신사     |                                       |                                     |
| 1607   | 中華的                                 | 국교재개기   | 교린관계 회복 단계<br>(1603-1635)             | 교린관계 회복<br>교섭기<br>(1599-1635)       |
| 1617   | 交隣體制의                               |         |                                       |                                     |
| 1624   | 復活                                  |         |                                       |                                     |
| 1636   | 조선후기<br>(1636-1810)<br>脫中華의<br>交隣體制 | 국교안정 전기 | 통신使·問尉行<br>이원교류의<br>단계<br>(1636-1811) | 교린체제의<br>확립 및<br>안정기<br>(1636-1811) |
| 1643   |                                     |         |                                       |                                     |
| 1655   |                                     | 개변기     |                                       |                                     |
| 1682   |                                     |         |                                       |                                     |
| 1711   |                                     | 국교안정 후기 |                                       |                                     |
| 1719   |                                     |         |                                       |                                     |
| 1748   |                                     |         |                                       |                                     |
| 1763   |                                     |         |                                       |                                     |
| 1811   | 交隣體制의<br>變質과 崩壞                     | 쇠퇴기     |                                       |                                     |
| 1812이후 |                                     |         | 問尉行<br>일원교류의<br>단계<br>(1812-1867)     | 쇠퇴기<br>(1812-1867)                  |

앞의 <표 1>에서 보이듯이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중국의 중화적 교린체제를 극복하고 조·일 관계가 독자적인 교린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막부 정권 교체에 의해 새로운 외교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관련한 외교관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일 양국만의 문제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삼국간 외교관계를 살피는 시각에서 먼저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고병익의 「근세 中·韓·日의 鎖國(上)」<sup>8)</sup>이나 김양선의 「仁·孝 兩朝 蘭人의 漂到와 韓·中·日 삼국의 외교관계」<sup>9)</sup>는 그러한 일면을 잘

8) 高柄翊, 「근세 中·韓·日의 鎖國(上)」, 『진단학보』 29:30, 1966.

9) 김양선, 「仁·孝 兩朝 蘭人의 漂到와 韓·中·日 삼국의 외교관계」, 『향토서울』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조선후기 대일관계 시작의 핵심이 되는 己酉約條의 성격을 세견선과 연관시킨 이현종의 연구<sup>10)</sup>도 주목할 만하다.

己酉約條와 관련하여 대마도와의 외교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경향은 1970년대에도 이어진다. 김종욱의 以酌庵·萬松院 관련 연구<sup>11)</sup>나 이준걸의 대마종가문서 관련 연구<sup>12)</sup>, 이현종의 기유약조 세부내용 분석<sup>13)</sup> 등은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마도와 관련한 연구가 주목되는 현상은 ‘부산과 대마도’라는 지역 대 지역 관계라는 점에서도 연관성이 있다. 사실 대일관계라는 명목을 붙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외교와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은 부산과 대마도 두 지역간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마도와 관련한 연구경향은 1980년대까지도 이어지는데, 김의환은 대마도종가문고본 중 『和館事考』에 대하여 정리하였고<sup>14)</sup>, 泉澄一도 종가문서를 분석했다.<sup>15)</sup> 이옥순은 宗氏家門의 계보를 밝히기도 했다.<sup>16)</sup>

1980년대 후반부터는 당시 외교의 담당자였던 譯官에 접근하는 연구<sup>17)</sup>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역관의 전반

30, 1967.

10) 李鉉淙, 「己酉約條成立始末과 歲遣船數에 대하여」, 『항도부산』 4, 1964.

11) 金鍾旭, 「以酌庵輪番(交代)에 대하여」(상·하), 『도서관』 29-5-6, 1973; 金鍾旭, 「以酌庵輪番(二交代)에 대한 小考(상·하)」月刊, 『日本研究』 10-11, 1974; 金鍾旭, 「對馬의 萬松院」, 『日本研究』, 1975.

12) 李俊杰, 「대마도종가문서개관」, 『도협월보』 12·7, 1971.

13) 李鉉淙, 「己酉約條內容의 史書別 綜覽檢討」, 『대구사학』 7·8, 1973.

14) 金義煥, 「대마종가문고본 중 『和館事考』에 대하여」, 『천관우선생활력기념, 한 국사학논총』, 1985.

15) 泉澄一, 「대마도 종가문서의 분석연구-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기록류(6,592점)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 국사편찬위원회, 1989.

16) 이옥순, 「對馬島主 宗氏家門의 근원과 16세기까지의 계보」, 『동아논총』 19, 1985.

적인 성격이나 역할을 규정하기 보다 역관의 선발이나 譯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시기 대일외교에 관한 연구도 외교의 한 일면을 살피기보다 전체적인 틀을 살피는 연구가 보인다. 손승철의 연구<sup>18)</sup>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事大交隣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일외교의 모습을 규정하려 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대외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연구성과도 양적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의 연구는 1980년대의 흐름과 이어져 사대교린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외교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손승철은 교린체제라는 틀 속에서 대일관계를 바라보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sup>19)</sup>, 민덕기도 지역이라는 좁은 틀보다 국가대 국가의 입장에서 대일관계를 살피고 있다.<sup>20)</sup> 또한 조선 왕조 시기별로 대일관계를 살펴본 이민호의 연구<sup>21)</sup>도 있다.

- 
- 17) 김양주, 「조선후기의 역관신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 강신항, 『李朝時代の 譯學政策과 譯學者』, 국어학연구찬서4, 탑출판사, 1985; 정광, 『司譯院 倭學研究』, 태학사, 1988.
- 18) 孫承喆, 「조선후기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및 정책의 사상적 특징」, 『사회과학연구』 25, 1987; \_\_\_\_\_, 「조선조 事大交隣政策의 성립과 그 성격; 조선조 대외정책사연구시론」,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1988.
- 19) 孫承喆, 「조선후기 대일교린체제의 개편과 성격」, 『白山朴成壽教授華甲紀念論叢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 1991; \_\_\_\_\_, 「조선시대 교린체제의 분석과 그 문제점」,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 1993; \_\_\_\_\_, 「조선후기 탈중화적 교린체제의 독립성과 허구성」, 『국사관논총』 57, 1994; \_\_\_\_\_, 「명·청 교체기 대일외교문서의 연호와 간지」, 『대동문화연구』 32, 1997; \_\_\_\_\_, 「조선중화주의와 일본형화주의의식의 대립」, 『일본연구』 11, 1997.
- 20) 閔德基, 「조선후기 조·일강화와 조·명 관계」, 『국사관논총』 12, 1990; \_\_\_\_\_, 「德川幕府의 대외체제와 明·淸의 교체」, 『아시아문화』 10, 1994; \_\_\_\_\_, 「조선시대 교린의 이념과 국제 사회의 교린」, 『민족문화』 21, 1998.
- 21) 이민호, 「임진왜란 후 조선의 대일외교-국교재개과정-」,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1993; \_\_\_\_\_, 「임진왜란 첫 회담겸쇄환사의 파견」, 『동서사학』 1, 1995; \_\_\_\_\_, 「임진왜란과 대일국교재개의 서막」, 『황산 이흥종박사 화갑기



이 외에 외교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밝힌 연구들도 많이 나타난다. 이훈<sup>22)</sup>과 장순순<sup>23)</sup>은 외교관계에 사용된 서식의 규정을 밝혀서 체제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홍성덕은 대일외교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사신들의 업무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sup>24)</sup> 양홍숙은 일본사신을 접대했던 접위관의 파견과 활동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sup>25)</sup> 한문중은 대일외교에서 기록으로 남겨진 謄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대일관계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sup>26)</sup> 그리고 부산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하우봉이 조선후기 대일관계를 정리하고 있는데<sup>27)</sup>, 통신사와 왜관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일관계의 다른 일면을 살피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외에 비일상적인 외교관계라는 점에서 표류관련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조선시대의 표류는 쇄국체제라는 상황 하

념사학논총, 1997; \_\_\_\_\_, 「광해군조 대일관계고찰」, 『동서사학』 4, 1998; \_\_\_\_\_, 「인조조의 대일관계고찰」, 『동서사학』 4, \_\_\_\_\_; 이민호, 「효종조의 대일외교」, 『동서사학』 4, 1998.

22) 李 薰, 「조선후기 대일외교문서의 사료적 특징」, 『水村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下, 1992; \_\_\_\_\_, 「조선후기 대일외교문서-書契式的 定着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 1993; \_\_\_\_\_, 「조선후기 위식서결을 통해서 본 조·일교섭의 특징-조선측 서결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 1993.

23) 張舜順, 「조선후기 일본의 서계 위식실태와 조선의 대응; 『변례집요』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 1993.

24) 洪性德, 「조선후기 일본국왕사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 \_\_\_\_\_, 「조선후기 대일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11; \_\_\_\_\_, 「조선후기 問慰行에 대하여」, 『한국학보』 59, 1990; \_\_\_\_\_, 「17세기 別差倭의 내도와 대일관계」, 『전북사학』 15집, 1992.

25) 양홍숙, 「조선후기 대일 접위관의 파견과 역할」, 『부대사학』 24, 2000.

26) 韓文鐘,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연구-대일관계 등록류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 1999.

27) 河宇鳳, 「임진왜란 이후의 釜山과 日本關係」, 『항도부산』 9호, 1992.

에서 한·중·일 삼국간에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표류민의 발생은 대외관계에서 해양교류와도 결부되는 문제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호간의 인식이나 이국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런 경험들은 漂流記를 통해 남겨지기도 했는데, 이지항의 『漂舟錄』, 이종덕의 『漂海錄』 등이 있다. 물론 표류가 부산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 근처 해안을 포함한 동남해안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표류민의 처리나 처우 등이 대일관계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류에 관한 연구는 일본측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의 연구성과는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1990년대가 되면 표류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었고 특히 池內敏<sup>28)</sup>에 의한 정력적인 활약이 빛났다. 또한 上原兼善 대표 『조선통신사 및 동아시아의 표류민을 둘러싼 제문제』(1998) 등의 단행본으로 된 연구성과들이 많이 출판되었고, 1999년 4월 29일에는 심포지엄 「조선시대 표류를 통하여 본 한일관계」(한일관계사학회 주최)가, 1999년 7월 24일에는 「근세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표류민과 국가」(동경대학사학회 주최)가 한일 양국에서 개최되는 등 활발한 연구교류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이훈<sup>29)</sup>에 의해서 표류민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28) 池內敏의 「근세 조선인의 대일인식노트」(1995), 糟谷政和의 「1840·80년대 제주도민의 일본·중국·유구로의 표착과 송환경로」(1997), 六反田豊의 「19세기 제주도민의 해난과 표착」(1999), 六反田豊의 「『제주계록』에 보는 19세기 제주도민의 표류·표착 사례」(2000)가 있다.

29) 李 薰, 「조선후기 일본에서의 조선인 표민 취급과 선린 우호의 실태; 조선인 표민의 騷擾형태와 수습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47, 1993; \_\_\_\_\_, 「조선 후기 표민의 송환을 통해서 본 조선, 유구관계」, 『사학지』 27, 1994; \_\_\_\_\_,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낸 이훈은 2000년에 표류에 관한 자신의 연구를 총 정리한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sup>30)</sup>를 펴 내었다. 여기서는 표류·표착의 회수 및 잡물지급의 실태, 체류 중의 사건등을 조선과 일본의 다양한 사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박진미<sup>31)</sup>에 의해서 표류인들의 실상을 기록한 『漂人領來謄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999년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표류민 관련 심포지움의 성과는 2001년에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sup>32)</sup>로 정리되었다.

이상의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이 국가의 외교정책적인 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실상은 표류민들의 문제가 표착지와 표류민 처리 지역 등 지역적인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실태 분석은 아직도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었던 유구와의 교류 문제도, 후기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소수이지만 연구 성과가 있다. 유구관련 연구는 소략한 가운데에서도 대부분 조선전기의 유구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이훈은 조선후기 표류민 송환과 관련하여 조선과 유구의 관계를 고찰하였다.<sup>33)</sup> 또한 손승철은 유구관련 연구성과를

---

「조선후기 일본인의 조선 표착과 송환」, 『한일관계사연구』, 1995; \_\_\_\_\_, 「18세기 일본 표선에 대한 잡물(오일량)지급과 조.일 교섭 왜곡-대마번의 왜관 도해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9, 1998; \_\_\_\_\_,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1999.

30) 李 薰,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31) 박진미, 「『漂人領來謄錄』의 종합적 고찰」, 『경북사학』 19, 1996.

32)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연구』, 한일관계사학회, 2001.

다수 제출하였는데<sup>34)</sup>, 조선과 유구 관련 사료에 대한 연구, 조선과 유구의 외교체제 등을 살피고 있다.

조선 후기의 대일 외교 연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이뤄내고 있으나 아직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남아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로 계속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 Ⅲ. 대일무역

조선 전기의 무역은 주로 왜구 문제와 관련하여 대마도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형태에서 본다면 동평관 및 포소왜관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평관에서 주로 외교사건 처리 및 무역품목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외교와 무역교류가 완전하게 분리되지 못한 형태였다. 결과 무역도 사무역이나 밀무역보다는 공무역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의 중앙사료인 실록에 기록된 무역도 공무역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삼포왜란 이전의 무역관련 기사 및 연구는 대부분 공무역과 관련된 것이 많다.

반면 조선후기의 대일무역은 외교와 무역의 분리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연구는 무역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은 공무역·개시

33) 李 薰, 「조선후기 漂民의 송환을 통해서 본 朝鮮-琉球관계」, 『史學志』, 단국대 사학회, 1994.

34) 孫承喆, 「朝鮮-琉球關係 史料에 대하여」, 『성대사학』 12·13합집, 1997; \_\_\_\_\_, 「조유 교린체제의 구조와 특징」, 『강원사학』 13·14, 강원대.

무역(사무역)·밀무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구분에 의해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조선 후기 대일무역은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 후 1611년 9월 대마도에서 최초의 세견선이 파견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선은 의례적인 물품을 주고받는 진상과 회사뿐만 아니라 공무역·개시무역(사무역)을 위한 무역품도 있었다. 공무역에서 본다면, 전기보다는 활발하지 않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전기에는 동평관을 통하여 물품의 가격이 정해지고, 물품이 거래되었지만, 후기에는 상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무역은 부산의 왜관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무역의 주된 형태는 대체로 사무역이나 밀무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관련 연구도 공무역보다는 사무역이나 밀무역에 치중된 면이 많았다.

조선 후기 공무역에 접근한 연구자로는 정성일을 들 수 있는데<sup>35)</sup>, 개항이 될 무렵의 공무역의 형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정성일은 공무역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무역물품, 형태, 서계 및 별폭 등의 체제적인 면까지 총괄하여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일무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집대성하여 『조선후기 대일무역』<sup>36)</sup>을 펴내기도 했다.

조선후기의 대일무역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왜관을 중심으로 한 사무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970년대의 연구도 대체로 사무역에 집중되어 있다. 김병하의 「17·8세기의

35) 鄭成一, 「明治維新 직전 조일무역의 존재형태-1867년의 公貿易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4집, 전남대 기업경영연구소, 1991; \_\_\_\_\_, 「조.일간 공무역 - 서계별폭(1614~99)의 분석」, 『사학연구』 제58·59호, 1999; \_\_\_\_\_, 「조선후기 대일무역에서 사용된 명문의 (明文) 형식과 특징」, 『고문서연구』, 1996.

36) 鄭成一,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銀蔘問題-對日 人蔘貿易을 중심으로-」<sup>37)</sup>, 유승주의 「17세기 사무역에 관한 일고찰-朝·淸·日의 燄硝·硫黃 무역을 중심으로-」<sup>38)</sup>, 오성의 「조선후기 ‘蔘商’에 대한 일고찰-私商의 擡頭와 관련하여-」<sup>39)</sup> 등에서 사무역 관련 연구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당시 가장 주요한 품목이었던 인삼·유황·은 등의 단일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밝히고 있다.

1980년대에도 사무역 관련 연구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박광순·정성일은 17~18세기 사무역의 현황과 시장구조를 밝히고 있고<sup>40)</sup>, 차수정은 사무역 품목 중 인삼무역과 蔘商에 관한 연구<sup>41)</sup>를 발표했다. 또한 일본 무역 중에서도 당시 일본 교류의 대표지역이었던 대마도와의 무역을 중심으로 발표한 이성만<sup>42)</sup>, 田代和生<sup>43)</sup>의 연구도 있다.

1990년대 이후가 되자 왜관을 중심으로 한 대일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무역품목을 비롯하여 규정, 활동 양상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왜관 무역도 사무역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사무역 관련 물품에 대한 연구는 계

37) 김병하, 「17-8세기의 銀蔘問題-對日 人蔘貿易을 중심으로-」, 『경희대 정경논집』 9, 1972.

38) 柳承宙, 「17세기 사무역에 관한 일고찰-朝·淸·日의 燄硝·硫黃 무역을 중심으로-」, 『홍대논총』, 1979.

39) 吳 星, 「조선후기 ‘蔘商’에 대한 일고찰-私商의 擡頭와 관련하여-」, 『한국학보』 17, 1979.

40) 朴光淳·鄭成一, 「조선후기 대일사무역의 시장과 상품구조-17세기 초~18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경영논총』 11, 전남대 경영대학원, 1986.

41) 차수정, 「조선후기 인삼무역의 전개과정-18세기 초 蔘商의 성장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북약사론』 1, 국민대 사학과, 1989.

42) 李聖萬, 「임란후의 (任亂後) 조일양국의 (朝日兩國) 교섭에 (交涉) 관한 연구 - 조선と (朝鮮) 대마번의 (對馬藩) 무역관계를 (貿易關係) 중심으로 -」, 『일본학보』, 1985.

43) 田代和生, 「對馬藩과 倭館貿易」, 『朝鮮通信使』(김용선 역), 1982.

속되었다. 당시 대일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인삼이었기 때문에 인삼거래와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오성<sup>44)</sup>·정성일<sup>45)</sup>의 연구가 있다. 또한 김동철은 대일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동래상인을 중심으로 교역품<sup>46)</sup>,牛皮무역<sup>47)</sup>, 왜관 개시무역<sup>48)</sup> 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 대마도와외의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공작미 문제<sup>49)</sup>에 관해서도 접근하고 있다. 또한 후기 무역에서 유일하게 왜인 求請에 대한 연구<sup>50)</sup>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밀무역의 양상을 살핀 연구도 빼 놓을 수 없는데, 김동철은 일반 왜학역관 뿐만 아니라 동래부의 小通事도 동래지역에서의 밀무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sup>51)</sup> 그리고 당시의 화폐였던 동전과 은화로 대일무역을 짚어본 정성일의 「朝鮮의 銅錢과 日本의 銀貨：貨幣의 流通을 통해 본 15~17世紀 韓日關係」<sup>52)</sup>나 밀무역의 형태 중에서도 사신으로 가서

44) 吳 星, 「조선후기 인삼무역의 전개와 蔘商의 활동」, 『세종사학』 1, 1992.

45) 鄭成一, 「개항 직전 대일교역품의 특징(1874~1875)」, 『水村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下, 1992; \_\_\_\_\_, 「19세기 초 조선산 栽培蔘의 대일수출 교섭-禮單蔘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43, 1993; \_\_\_\_\_, 「조선산 인삼종자와 일본의 인삼 수입대체」, 『春溪朴光淳博士華甲紀念, 경제학논총』, 1993; \_\_\_\_\_, 「조일 무역을 이끈 조선 인삼과 일본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1998.

46) 金東哲, 「17세기 일본과의 교역·교역품에 관한 연구-밀무역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995.

47) 金東哲, 「19세기 牛皮무역과 東萊商人」, 『한국문화연구』 6, 1993.

48) 金東哲,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1998; \_\_\_\_\_,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피집삼」, 『한국민족문화』 13, 1999.

49) 金東哲, 「17·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公作米 문제」, 『항도부산』 10, 1993.

50) 정경주, 「인조-숙종조의 왜인 구청관행과 결제방식-조선후기 대일무역 사례 소개」, 『무역평론』 장간호, 경성대 무역연구소, 1994.

51) 金東哲, 「17~19세기 동래부 소통사의 편제와 대일활동」, 『지역과역사』 17, 2005.

52) 鄭成一, 「朝鮮의 銅錢과 日本의 銀貨：貨幣의 流通을 통해 본 15~17世紀 韓日關係」, 『한일관계사연구 (제20집)』, 2004.

무역을 했던 사행무역에 대해 연구한 이철성의 연구<sup>53)</sup>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무역에서는 상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의 언어 문제도 중요하였는데, 당시 무역에서 일본인과의 통역을 담당했던 왜학역관이 통역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무역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밀무역에도 깊이 관여한 사실을 밝힌 양홍숙의 연구<sup>54)</sup>도 흥미롭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요청하였던 물품과 그 처리 사항을 기록해 놓은 『왜인구청등록』<sup>55)</sup>이 국역되어 당시 무역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상황 등을 더 쉽게 알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구청에 대한 연구는 정경주의 연구가 유일하다는 것은 이제껏 구청등록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왜인구청등록』의 국역 사업으로 인해 구청관련 물품이나 방식 등 조선 후기 대일무역에 대한 여러 방면에서의 연구가 앞으로 더 활기를 띠 것으로 생각된다.

#### IV. 왜관

왜관은 이미 조선전기부터 일본인 통교자의 접대소로서 설치되었고, 조선 후기의 왜관도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전시대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었으나 후기에는 그 특징이나 방침이 전기와는 다른 면을 많이 가진다. 일단 후기의

53) 이철성, 「조선후기 무역상인과 정부의 밀무역 대책 -사행무역을 중심으로-」, 『사총』, 2004.

54) 양홍숙, 「17~18세기 倭學譯官의 대일무역」, 부산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양홍숙, 「17~18세기 역관의 대일무역」, 『지역과 역사』 5호, 1999.

55)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역, 『국역왜인구청등록』, 2004~2006.



왜관은 전기에 접대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분되었던 것과는 달리, 부산지역의 왜관으로 일원화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후기 왜관은 전기에 비해 부산지역의 역할과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후기 왜관의 몇 가지 특징을 꼽는다면, 첫째 왜관의 所在가 부산지역 한 곳으로 축소된 것이다. 즉 임진왜란 이전에는 각지의 포소왜관 및 동평관에서 분담하여 이루어졌던 일들이 후기에는 부산지역 한 곳으로 집중된다. 물론 부산지역으로 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한 곳에서 왜관이 지속적으로 존속했던 것은 아니고, 절영도왜관·두모포왜관·초량왜관 등 왜관의 이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왜관의 통제책이 강화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런 통제책의 일환으로 癸亥約條(1683)나 辛卯約條(1711) 등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약조의 체결은 통제책의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왜관을 둘러싸고 그만큼 많은 불법행위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함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왜관의 이런 특징들을 고려하여 조선후기 부산지역과 관련한 왜관의 연구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조선후기 왜관연구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sup>56)</sup>, 戰前에 연구가 진행되어 이들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왜관의 규모, 구조, 절영도왜관의 존재 등이 개략적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왜관의 연구는 長正統<sup>57)</sup>, 田代和

56) 戰前의 선구적 연구로는 高橋章之助의 「和館設置と其經營」·「和館敷地占有の根本義」『宗家と朝鮮』(1920, 高橋章之助發行, 京城), 武田勝藏의 「日朝貿易史上の三浦と和館」『史學』113(1922), 小田省吾의 「釜山の和館と設門とに就て」『朝鮮』125(1925), 「李氏朝鮮時代における倭館の變遷一就中絶影島倭館に就て」『朝鮮支那文化の研究』(1929, 邊江書院, 東京), 淺川伯教의 「釜山窯と對州窯」(1930, 彩壺會, 東京) 등을 들 수 있다.

生<sup>58)</sup>, 荒野泰田<sup>59)</sup>, 鶴田啓<sup>60)</sup> 등에 의해 확대·심화되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 왜관연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金容旭의 「釜山倭館考」<sup>61)</sup>와 李完永의 「東萊府 및 倭館의 行政小考」<sup>62)</sup>가 그것이다. 이들 논문은 조선의 사료에 기초하여 왜관의 변천, 구조, 조선측의 왜관관리, 왜관과 관련된 조선의 禁制 등을 다루었고, 왜관을 포함하여 대일통교에 있어서 조선측의 여러 규정을 제도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찬사료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한편 1970~1980년대에는 이전시기에 비해 왜관 관련 연구가 조금 더 체계를 띄고 있다. 蔡中默의 「倭館을 接觸点으로 한 韓日外交 文涉史 研究」<sup>63)</sup>는 외교 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金義煥<sup>64)</sup>은 지역 사료를 활용하여 왜관의 체제적인 면이나 제도사적인 면을 충실하게 개관하고 있다. 또한 권중림의 『17-18세기에 있어서의 倭館貿易』<sup>65)</sup> 간행은 1980년대 이후 왜관 무역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가 되면 왜관연구는 종전의 체제나 제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무역·생활·인식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며, 동시에 연구 성과도 양적으로 급증·활성화 되었다. 또한

57)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50-4, 1968.

58) 田代和生,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文藝春秋, 2002.

59) 網野善彦編, 『海と列島文化』 10, 小學館.

60) 鶴田啓, 「釜山倭館」, 荒野泰田編, 『日本の時代史14江戸幕府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61) 金容旭, 「釜山倭館考」, 『韓日文化』 1-2, 1962.

62) 李完永, 「東萊府 및 倭館의 行政小考」, 『港都釜山』 2, 1963.

63) 蔡中默, 「倭館을 接觸点으로 한 韓日外交 文涉史 研究」, 1973.

64) 金義煥, 「李朝時代における釜山倭館の起源と變遷」, 『日本文化史研究』 2, 1977; \_\_\_\_\_, 「釜山倭館の職官構造とその機能について」, 『朝鮮學報』 108, 1983; \_\_\_\_\_, 「釜山倭館貿易の研究-15世紀から17世紀にかけての貿易形態を中心に-」, 『朝鮮學報』 127, 1988.

65) 권중림, 『17-18세기에 있어서의 倭館貿易』, 1987.

왜관의 제도·체제적인 연구에서도 조선측 사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료들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조·일 양국의 시각을 함께 살피고 있다. 90년대 이후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왜관의 이전 및 변천에 대한 논고를 살펴보면, 절영도 왜관에서 豆毛浦倭館, 草梁倭館으로의 이전문제에 주목한 것을 들 수 있다. 왜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1970년대에 김용욱이 「倭館考」<sup>66)</sup>에서 조선전기부터 초랑왜관 성립까지의 변천과정을 다루었는데 다소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후 張舜順이 「朝鮮後期 倭館의 設置와 移館交涉」<sup>67)</sup>에서 처음으로 후기 왜관의 이관문제를 단독주제로 설정하였고, 윤용출의 「17세기 중엽 두모포왜관의 이전교섭」<sup>68)</sup>도 발표되었다. 또한 김재승<sup>69)</sup>은 존속기간이 짧고 사료부족으로 인해 잘 다루지지 않았던 절영도 왜관의 존속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다. 이 논문들은 조선측 사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왜관의 이전교섭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對馬藩의 입장이 명확하게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尹裕淑은 「17世紀における日朝間の倭館移轉交涉」<sup>70)</sup>에서 왜관이전교섭과정을 다루면서 일본측 사료도 활용하여 상대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왜관의 이전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가 더 심화되어 왜관의 건축적인 부분이나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로도 많이 나

66) 金鍾旭, 「倭館考-釜山豆毛浦倭館에서 草梁倭館까지-상하」, 『國會圖書館報』 11-1, 1974.

67) 張舜順, 「朝鮮後期 倭館의 設置와 移館交涉」, 『한일관계사연구』 5, 1996.

68) 윤용출, 「17세기 중엽 두모포왜관의 이전교섭」, 『한국민족문화』 13, 1999.

69) 김재승, 「절영도왜관(絶影島倭館)의 존속기간과 그 위치」, 2000.

70) 尹裕淑, 「17世紀における日朝間の倭館移轉交涉」, 『史觀』 149, 2003.

타나고 있다. 왜관의 건물에 관한 논문으로는 왜관에 부속된 조선측 公館(譯官執務所, 柔遠館)의 설영, 연혁, 구조, 기능을 검토한 김동철의 「柔遠館先生埋案感古碑와 부산의 역관 건물」<sup>71)</sup>이 있으며, 왜관건물의 구조, 조영, 수리를 다룬 것으로는 鄭禮晶의 「초량왜관의 조영에 관한 연구」<sup>72)</sup> 등이 있다. 또한 張舜順은 『조선시대 왜관변천사연구<sup>73)</sup>』에서 조선전기부터 개항기(明治時代)에 이르기까지 왜관의 변천과정을 다루면서 각 시대별 왜관의 기능을 해명하였다. 尹裕淑은 「近世倭館の造營·修補について」<sup>74)</sup>에서 초량왜관의 조영 및 두모포왜관과 초량왜관에서 실시된 건물의 수리와 개건의 실태, 수리 담당자와 비용의 부담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근세왜관의 관리실태를 밝힌 專論으로는 최초의 성과이다.

왜관관련 연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은 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무역 분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대일 무역 부분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한다. 이 외에 왜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한 논문으로는 李進熙의 「草梁倭館의 役割」<sup>75)</sup>이 있다. 생활사적 접근을 통한 연구로는 왜관에 거류하는 대마도인과 東萊府 관리 및 조선 주민들간의 접촉 내지는 마찰, 나아가서는 마찰을 계기로 형성되는 상대편에 대한 인식을 소재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孫承喆의 「『倭人作拏膽錄』을 통하여 본 倭館」<sup>76)</sup>은 교

71) 金東哲, 「柔遠館先生埋案感古碑와 부산의 역관 건물」, 『항도부산』 16, 2000.

72) 鄭禮晶, 「초량왜관의 조영에 관한 연구」, 부산대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김순일 鄭禮晶, 「초량왜관의 창건 수리 및 중수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건축역사연구 제26권, 2001.

73) 張舜順, 『조선시대 왜관변천사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74) 尹裕淑, 「近世倭館の造營·修補について」, 『歷史評論』 595, 1999.

75) 李進熙, 「草梁倭館의 役割」, 『韓日關係學術會義要地』, 1991.

76) 孫承喆, 「『倭人作拏膽錄』을 통하여 본 倭館」, 『港都釜山』 10, 1993.

간사건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차이 및 처리과정을 통해 마찰이 양국에서 차지하는 외교사적인 의미와 부산지역의 사회사 내지 생활사적인 의미를 추구하였다. 제임스 루이스<sup>77)</sup>는 왜관 내의 교간사건이나 매춘사건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논고로 제출하여 양국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와 마찰, 갈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尹裕淑<sup>78)</sup>은 조선후기에 체결된 한일간의 약조가 왜관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일련의 약조의 교섭과정, 내용, 의의를 재검토한 위에, 왜관에서 발생한 양국인의 불법행위(잠상, 난출, 교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약조의 규정사항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해명하였다. 허지은도 「17세기 조선의 왜관통제책과 조일관계-계해약조(1683)의 체결과정을 중심으로-」<sup>79)</sup>에서 계해약조(1683년)의 체결과정을 검토했다. 그리고 기타 왜관을 통한 생활사적 접근으로는, 金聲振의 왜관 주변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본 글<sup>80)</sup>이나, 金東哲의 초량촌민의 생활상에 대한 글<sup>81)</sup>이 있다.

왜관과 관련한 문화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倭

77) 제임스 루이스, 「朝鮮後期 釜山倭館의 기록으로 본 朝日關係-‘폐·성가심(迷惑)’에서 상호이해로-」, 『韓日關係史研究』 6, 1996; 「釜山倭館을 중심으로 한 한일교류-교간사건에서 나타난 권력·문화의 갈등-」, 『정신문화연구』 20·1, 1997; 「釜山倭館における日朝交流-賣春事件にみる權力文化の相克-」, 中村實編 『鎖國と國際關係』, 1997; 「近世韓日兩國人の 相互認識-倭館에서 일어난 關出事件을 중심으로-」,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1998.

78) 尹裕淑, 「近世癸亥約條의 運用實態について-潘商·關出事件을 중심으로-」, 『朝鮮學報』 164, 1997; 「約條にみる近世の倭館統制のついて」, 『史觀』 138, 1998.

79) 허지은, 「17세기 조선의 왜관통제책과 조일관계-계해약조(1683)의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5, 2001.

80) 金聲振, 「釜山倭館과 韓日間文化交流」, 『한국문화논총』 22, 1998 ; 「19세기 초 金海人の 생활을 침식한 倭風」, 『지역문화연구』 3, 1998.

81) 金東哲, 「17~19世紀の釜山倭館周邊地域民の生活相」, 『年報都市史研究9 東アジアの傳統都市』, 2001.

館圖와 관련된 연구일 것이다. 왜관도는 조선 뿐 아니라 일본에도 보이며, 왜관의 구조나 의례 등을 잘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동철이 왜관도를 그린 변박의 서화활동과 작품소개, 대일활동 등을 고찰한 것이 있다.<sup>82)</sup> 하지만 그의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고찰은 미루고 있다. 또한 왜관에서의 숙배례나 연회장면을 추측할 수 있는 「東來府使接倭使圖」도 있는데, 이 그림들은 총 두 점으로 동래부에서 왜관으로 왜인들의 접대를 위해 행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 중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의 그림에 대한 연구는 몇 편 있다. 최영희는 중앙박물관 소장 그림의 저자를 鄭勳으로 비정하고 제목부터 ‘정선의 동래부사접왜사도’라고 하고 있으며<sup>83)</sup>, 홍선표, 최상진도 병풍 폭별로 그림 설명을 하고 있다<sup>84)</sup>. 하지만 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接倭使圖’는 왜관의 서쪽경관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 외에 왜관과 관련된 그림들은 변박이 그린 「草梁倭館圖」(178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 對馬宗家文庫 소장의 「초량왜관」과 「釜山和館竣工圖」(1739년 이후로 추정) 등이 있다. 이 외에 일본 소장의 그림들도 있으며, 사진 자료로는 『부산항 130년』에서 개항기 무렵의 왜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이나 사진 자료는 아직 간략한 소개로만 그치거나 다른 논지 전개를 위한 보충자료로서의 역

82) 鄭禮品, 「왜관도를 그린 변박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 2003.

83) 崔永禧, 「정선의 동래부사접왜사도」, 『고고미술』 129·130, 1976.

84) 洪善杓, 「동래부사접왜사도」, 『한국의 미』 19권, 중앙일보사, 1985.

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관련 사료가 보조자료로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서의 역할이나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새로 발견된 왜관 지도를 밝힌 장순순의 「새로 발견된 왜관지도-포산항견취도」<sup>85)</sup>는 개항기 무렵의 왜관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다시로 가즈이의 저서가 정성일에 의해 번역되어 『왜관-조선은 왜 일본 사람을 가두었을까』<sup>86)</sup>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저서는 왜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저서의 제목을 본다면, 왜관의 성격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즉 왜관이 단순한 객관이나 아니면 日本町이나 하는 것인데, 이런 성격에 대한 규정은 각 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구체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 V. 통신사

조선후기에 부산의 왜관에서 외교업무를 총괄하면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사신이 파견되어 외교현안을 해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1607년을 포함한 세차례의 회담겸쇄환사가 파견된 이후 1636년부터 幕府將軍에게 파견

85) 張舜順, 「새로 발견된 왜관지도-포산항견취도」,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제16집), 2002.

86) 다시로가즈이 저, 鄭成一 역, 『왜관-조선은 왜 일본 사람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하는 사신은 통신사, 對馬藩에 파견한 問慰行으로 사신파견이 정례화 되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보내는 差倭, 年例送使도 일본의 대조선 사행체제 속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사신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관계와 관련한 사신의 연구는 통신사 부분으로만 한정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신사의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기타 사신관련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넘기려 한다.

韓國 中世와 近世에 이르는 기간동안 ‘일본에 交隣과 信義를 통한다’는 명목으로 파견된 사신을 通信使라 한다. 통신사는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가면서 國書傳達者로서, 文化전파자로서, 혹은 情報 제공자로서의 역할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하지만 使節의 명칭이나 성격이 아직도 정확하게 규정되지 못했고, 국내에서의 연구 성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논문 편수가 일본의 1/10 밖에 되지 않는다<sup>87)</sup>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전에 통신사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조선시대 외교사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sup>88)</sup> 통신사 자체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89)</sup>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통신사를

87) 孫承喆, 「조선시대 통신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16, 2002.

88) ‘Saito, Bunzo, 『日本外交史』, 1929’에 일부 언급되어 있고, 또한 이 시기의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가 대다수였다.

89) 李鉉淙, 「조선전기 대외사절파견의 種別과 의의」, 『史學研究』 17, 1964. 전후 일본에 있어서 통신사연구의 대표적인 저작은 三宅英利의 『근세 일조관계사의 연구(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1986, 文獻出版)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책이 나가기 이전에는 李進熙·姜在彦·辛基秀를 비롯한 재일한국인 연구자들의 사적발굴과 계몽활동에 의해 조선통신사의 존재를 일반 일본인에게 인지도시키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이진희의 『李朝의 通信使』(1976, 講談社)와 『江戸時代の 通信使』(1979, 毎日新聞社)의 두 저서는 알려



단일 주제로 다룬 것이 아니라 여러 대외사절의 일부로 통신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후 70년대는 통신사 붐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90)</sup> 하지만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李進熙·姜在彦·辛基秀를 비롯한 재일한국인 연구자들의 사적발굴과 계몽활동에 의해 조선통신사의 존재를 일반 일본인에게 인지시키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이진희의 『李朝の通信使』(1976, 講談社)와 『江戸時代の通信使』(1979, 毎日新聞社)의 두 저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善隣友好的의 일조관계사를 발굴하는 탐구활동을 촉진시키고 잇따른 신기수의 통신사관련 영화제작 등의 사업은 1970년대 후반 ‘통신사 붐’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후 국내에서도 통신사를 단일 주제로 다룬 연구 성과들이 나오는데, 이원식·이준걸·최박광·김종욱 등의 글<sup>91)</sup>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역지통신인 1811년 통신사만을 다루거나, 그림, 여정, 문학 등의 단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통신사와 관련한 단행본<sup>92)</sup>이 나

지지 않았던 善隣友好的의 일조관계사를 발굴하는 탐구활동을 촉진시키고 1970년대 후반의 「통신사 붐」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90) 米容均, 「일본에서의 근세 일조관계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 2002.
- 91) 李元植, 「순조11년 신미일본통신사차견에 대하여」, 『사학연구』 23, 1973; 金鍾旭, 「조선후기 통신사 點描」, 『국회도서관보』 9-10; 이준걸, 「일본과견 조선통신사의 歷程」, 『도서관』 28-2, 1973; 최박광, 「18世紀 韓日間の 漢文學 交流-清泉 申維翰과 新井白石-」, 『전통문화연구』 1,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73.
- 92) 中村榮孝 외 저/김용선 역, 『조선통신사;일본은 우리가 키웠다』, 東湖書館, 1982; 金義煥, 『조선통신사의 발자취』, 정음문화사, 1985.

오고, 동시에 문학 쪽을 중심으로 기행록과 관련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발간된 단행본에 실린 논문의 주제를 보면, 다양한 주제로 통신사의 여러 모습을 조망하고 있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한·일간의 교류적인 측면보다는 조선의 문화를 일본으로 전수해 주었다는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 일본 측에서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인식한데 대한 반박으로 서술한 점은 인정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잃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통신사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활발한 연구경향은 인정해야 한다. 우선 사행록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 것이 많은데, 이혜순·소재영·김윤희의 연구<sup>93)</sup>가 있다. 이에 하우봉은 기존의 사행록 외에 새로운 사행록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했다.<sup>94)</sup> 어문 쪽에서 일본어 접촉을 중심으로 쓴 송민의 연구<sup>95)</sup>도 새로운 접근이다. 芳賀登·김정일·이민호·이성후·임성철 등<sup>96)</sup>은 외교상황과 관련하여 통신사를 바라봤으며, 김영숙·이

93) 이혜순,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논문집』 18, 숭실대, 1988; 蘇在英, 「18세기의 일본체험 - 『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논문집』 18, 숭실대학교, 1988; 김윤희, 「18세기 申維翰의 일본인식에 관한 고찰-통신사기록 『海遊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94) 河宇鳳, 「새로 발견된 日本使行錄들: 『해행총제』의 보충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112, 1986.

95) 송 민, 「朝鮮通信使의 일본어 접촉」, 『어문학논총』 5,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86; \_\_\_\_\_, 「朝鮮通信使의 日本語體驗」, 『어문학논총』 6,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87.

96)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한국학논집』 2,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2; 이민호, 「조선후기의 통신사행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이성후, 「조엄과 김인겸의 대일관 연구」, 『금오공대 논문집』 7, 금오공과대학, 1986; 임성철, 「朝鮮通信使派遣路交渉狀況의 展開」, 『釜山外大文化研究』, 부산외국어대, 1985; 김정일, 「조선후기 대일교린정책연구-1936년 통신사와 조선의 대마도인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경자·弓民峰<sup>97)</sup>은 통신사의 복식에 관한 소개도 했다. 또한 Ronals P. Toby의 논문<sup>98)</sup> 등은 통신사와 관련한 문화적인 시각에 한층 다가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통신사를 독립된 주제로 한 저서들과 일본측 저서의 번역이 활발해졌다. 손승철의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1994), 홍성덕의 『17세기 한일외교사행연구』(1998)는 대일외교체제론 및 국교재개 교섭과정과 관련하여 통신사의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한편 손승철은 통신사 일반에 대한 본격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三宅英利의 『근세 한일관계사연구』를 번역하였고,<sup>99)</sup> 三宅英利의 또 다른 저서인 『近世アセアの日本と朝鮮半島』는 『近世日本과 朝鮮通信使』(1994, 경인문화사)와 『조선통신사와 일본』(1996, 지성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어 각 분야에서 연구가 확대·심화되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80년대의 연구에 뒤이어 시야를 더욱 넓은 사행록 연구이다. 사행록 연구는 통신사의 문화사절적인 성격과도 관련하여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통신사절을 통해 외교관계와 상호인식을 살펴보고 있는 연구이다. 셋째로는 통신사절의 전 구성원의 형태나 성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개별적인 사절 구성원의 연구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97) 김영숙, 「조선시대 통신사 및 隨行員 服飾의 通時的 考察」, 『문화재』 19, 1986; 이경자·弓民峰, 「조선통신사 服飾의 一研究」, 『服飾』 제7호 83-102, 1983.

98) Ronals P. Toby(박은순 역), 「朝鮮通信使와 近世日本の 庶民文化-회화; 민화; 제례제연」, 『동양학』 18,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88.

99)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음과 같다.

첫째로 사행록의 연구인데, 1980년대의 연구성과를 발전시켜 이혜순·소재영은 통신사의 기행문학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sup>100)</sup>, 인식이나 문학자체의 연구로 진행시키고 있다.<sup>101)</sup> 또한 한태문은 통신사들의 기행록을 문학<sup>102)</sup>, 문사교류<sup>103)</sup>, 인식<sup>104)</sup>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부산지역과 관련하여 영가대해신제의 제문을 분석<sup>105)</sup>하여 제문 복원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사행록을 통하여 일본관<sup>106)</sup>이나 일본인식<sup>107)</sup> 등을 다룬 김성진과 이원식의 연구도 있으며, 박찬기는 통신사 문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朝鮮通信使と日本近世文學』<sup>108)</sup>을 저

100) 蘇在英, 〈『海行摠載』의 檢討〉, 『韓日文化交通史』, 민문고, 1991.

101) 李慧淳, 〈17세기 통신사행집단의 문학과 의식세계-남용익의 〈壯遊〉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7, 1994; \_\_\_\_\_, 〈18세기 한일 문사의 교류양상-己亥使行시 한일문사의 〈唱酬集〉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2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91; \_\_\_\_\_, 〈室鳩巢의 賦三韓事蹟詩 小考-18세기 문사의 한국사인식〉, 『冠嶽語文研究』 18, 1999.

102)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5; \_\_\_\_\_, 〈甲子 通信使行記 『東槎錄』 연구〉, 『人文論叢』 50, 부산대학교, 1997; \_\_\_\_\_, 〈조선후기 通信使 使行文文學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동양한문학연구』 10, 1996; \_\_\_\_\_, 〈17세기 通信使사행문학의 전개와 문학사적 의의〉, 『인문논총』 57, 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01.

103) 한태문, 〈『東槎錄』 所載 書簡에 반영된 韓日文士の 교류양상 연구〉, 『韓國文學論叢』 23, 한국문화회, 1998.

104) 한태문, 〈李彦瑱의 문학관과 통신사행에서의 시계인식〉, 『國語國文學』 34, 문창어문학회, 1997; \_\_\_\_\_, 〈[해행총재]소재 使行錄에 반영된 일본의 通過儀禮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화논총』 26, 한국문화회, 2000.

105) 한태문, 〈조선후기 대일 사행문학의 실증적 연구-부산 永嘉臺 海神祭와 祭文을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11, 1997.

106) 김성진, 〈조선후기 통신사의 기행시문에 나타난 일본관연구〉, 『陶南學報』, 1996.

107) 김성진,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본문학인식〉, 『韓國文學論叢』 18, 1996; 李元植, 〈通信使記錄을 통해 본 대일본인식〉, 『國史館論叢』 76, 1997.

108) 朴贊基, 『朝鮮通信使と日本近世文學』, 보고사, 2001.

술하였다.

둘째, 통신사절을 통한 외교관계나 상호 인식에 관한 연구는 90년대에 들어 아주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손승철이 조선후기의 전체적인 외교상황을 ‘탈중화적 교린체제’로 설명하고 있으며<sup>109)</sup>, 이훈은 宗家文書를 활용하여 외교적인 규식을 서술하였다.<sup>110)</sup> 또한 홍성덕은 대일관계에서 통신사뿐만 아니라 문위행이나 차왜 등 다른 사절 등도 함께 연구하고 비교함으로써 조·일 사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였다.<sup>111)</sup>

또한 통신사를 통하여 조선과 일본의 상호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도 많아졌는데, 조선인의 일본인식은 방기철·배수영·임형택·정장식·하우봉의 연구<sup>112)</sup>가 있고, 일본인의 조선인식에 대한 연구로는 이재원·田中敏昭 등의 연구<sup>113)</sup>가 있다. 최근에는 華夷觀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인식과 조선인식을 살펴본 조성을의 연구<sup>114)</sup>가 주목되는데, 이 연구는 한일 간 상호

109) 孫承喆, 〈조선후기 脫中華의 交隣體制의 독립성과 허구성〉, 『國史館論叢』 57, 1994.

110) 李薰, 〈朝鮮譯官使와 對馬島〉, 『朝鮮後期 韓日關係史學術講演會 發表要旨』, 한국사학회, 1991; \_\_\_\_\_, 〈朝鮮後期 對日外交文書-書契式의 定着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4, 한국고문서학회, 1993.

111) 洪性德, 〈17세기 朝日 外交使行 研究〉,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11, 1999.

112) 방기철, 〈학봉 김성일의 일본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배수영, 〈趙嚴의 海槎日記를 통해 본 일본인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임형택, 〈계미통신사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 비평』 1994년 가을호, 1994; 정장식, 〈1636년 通信使의 日本認識〉,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1999; 하우봉, 〈元重擧의 日本認識〉, 『韓國史學論叢』, 이기백선생회고기념논문집, 1994; 하우봉, 〈朝鮮初期對日本使臣의 日本認識〉, 『코리아나』 4-1, 1991.

113) 이재원, 〈18세기 일본지식인의 조선인식에 관한 일고찰: 雨森芳洲와 新井白石의 조선인식을 중심으로〉,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1995; 田中敏昭, 〈壬亂前의 豊臣政權과 對馬島主宗氏의 朝鮮外交: 總無事令을 중심으로〉, 단국대석사학위논문, 1996.

인식에 관한 연구를 총괄하는 성격을 지닌다.

셋째, 1990년대에 새로이 주목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이 통신사절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연구이다. 통신사의 구성원은 삼사·상상관·상관·차관·중관·하관으로 구성되는데<sup>115)</sup>, 정사에서 격군에 이르기까지 총 53개의 직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성원들 중 특정 員役을 중심으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역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 김서란은 통신사 수행 왜학역관의 구성 및 선발에 대해 연구<sup>116)</sup>하였고, 이상규는 왜학역관 중에서도 동래부에 파견되어 사행에 역할을 담당했던 왜학역관의 기능을 밝혔다.<sup>117)</sup> 그리고 강신항은 한·일 양국의 역관을 비교하여<sup>118)</sup> 살피고 있다. 이 외에 김경숙은 통신사의 제술관과 서기의 문학적인 면을 다루었고,<sup>119)</sup> 장순순은 조선후기 통신사행에서 독축관이 제술관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sup>120)</sup> 또한 홍선표는 한일 간에 통신사를 통해 교류되었던 화원들과 회화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 성과를 이뤄냈다.<sup>121)</sup> 개별적인 구성원 연구 외에 통신사행 전체 구성원의

114) 조성을, 「한국과 일본의 華夷觀의 변화와 상호인식-조선후기와 德川幕府期를 중심으로-」,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15) 『통문관지』, 『증정교린지』 등의 외교관련 저서에서 위와 같이 구분하여 구성원의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116) 金瑞蘭, 〈조선후기 通信使隨行 倭學譯官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7.

117) 李尙奎, 「17-18세기 東萊府에 파견된 倭學譯官의 기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8.

118) 강신항, 〈韓日兩國 譯官에 대한 비교 연구〉, 『인문과학』 23,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119) 김경숙, 〈18세기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문학세계;서얼의 신분과 문학관을 통해〉, 『濫知論叢』, 1995.

120) 張舜淳,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13, 1990.

121) 洪善杓,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

선발과 변화과정을 밝힌 필자의 연구<sup>122)</sup>도 있다. 하지만 아직 연구되지 못한 개별 구성원들이 많으므로 각 직책별로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더 추가하여 설명할 것은 90년대 이후의 통신사 관련 연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의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초에는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통신사의 문화 흔적을 찾는 연구들이 이원식·신기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123)</sup>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이 되면 김상보의 음식문화 연구<sup>124)</sup>,곽정숙·이자연의 복식문화 연구<sup>125)</sup>, 김재근의 通信使船 연구<sup>126)</sup> 등 새로운 연구 성과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홍선표는 통신사 수행화원과 더불어 회화교류의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으며, 김선화도 통신사 회화교류의 일면을 살피고 있다.<sup>127)</sup>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일본보다 한국측에서 젊은 연구

1995; \_\_\_\_\_,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6, 1998; \_\_\_\_\_, 〈조선후기 한일간 書蹟의 연구〉, 『미술사연구』 11, 1997.

- 122) 沈玟廷, 「조선 후기 통신사 원역의 선발실태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3, 2005.
- 123) 辛基秀, 〈通信使의 길에 비친 韓日交流〉,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1991; 李元植, 〈通信使行과 文化交流〉, 『韓日關係 學術會議 발표요지』, 한국사학회, 1991; \_\_\_\_\_, 〈통신사가 남긴 문화〉, 『한일교류사』, 민문고, 1991.
- 124) 김상보·장철수, 〈朝鮮 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飲食文化 교류〉, 『경영학연구』 13-4, 한국경영학회, 1999; 김상보, 〈조선통신사를 통해 본 한일 음식문화〉, 『조선통신사 한일학술대회』, 한일관계사학회, 2002.
- 125) 곽정숙,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가 본 京都의 服飾文化〉, 동서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이자연, 〈朝鮮前期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 간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服飾文化研究-일본으로부터의 收入品을 중심으로-〉, 『服飾』 52-4, 한국복식학회, 2002.
- 126) 김재근, 〈朝鮮後期通信使船:船型과 構造〉, 『學術院論文集』 33, 자연과학편, 1994.
- 127) 김선화, 〈조선통신사의 회화교류〉, 『동북아문화연구』 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1.

자들이 관련 연구에 많이 참여하여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물론 대일관계에서 문위행이나, 차왜, 송사 등 여러 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만 연구가 편중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통신사 연구는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통신사 시기구분이 일본측 에도시대 개막과 관련되어 이루어져 있는 점이나 이제껏 사행문학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역사학의 시각에서 세부적으로 밝혀내야 할 점도 많다. 이런 점은 앞으로의 계속된 연구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에 부산지방과 관련한 대일관계사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대일관계사의 분야가 너무 방대하여 모두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대체적인 흐름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부산지역과 관련한 것이라면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의 외교체제와 인식변화, 대일무역, 왜관, 통신사, 표류민 등과 관련된 연구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대일관련 국내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1970년대까지는 연구가 단편적인 주제에 그치고 있다. 즉 사료의 인용도 국내 사료에 편중되고 있고, 주제도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로의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부터인데, 특히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사료도 한국사료 뿐만 아니라 일본 사료, 문서, 등록류 등 다양한 사료 소개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1990년대 이후에도 계승되어 질적·양적



으로 연구가 더욱 심화·확대 되었다.

하지만 연구가 심화·확대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외교체제에서의 연구는 일본 학계에서 먼저 연구가 진행되어, 시기구분은 대체로 일본학계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손승철 등에 의한 조선의 교린체제를 중심으로 한 시기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화관계를 염두에 둔 시각으로, 국내 사정이나 사료만으로 정립된 구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상황 및 사료를 중심으로 한 시기구분을 여러 연구와 비판을 통해 정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교문제에서 표류민에 관한 문제나 후에 일본에 복속된 유구와의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표류민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훈의 연구성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국제적인 심포지움도 열려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의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특히 표류민의 처리가 지역 대 지역이라는 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부산지역 및 해안지역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는 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유구 관련 문제나 문화적인 면, 시각적인 사료로의 접근은 아직도 연구가 미진하여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대일무역관련 연구는 공무역·사무역·밀무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선전기에는 공무역과 외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역이 활성화되고 그에 관련된 연구도 많았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기유약조의 체결로 대일무역이 부산지역의 왜관으로 축소되면서, 무역의 형태도 왜관을 통한 사무역이나

밀무역이 주를 이루었고, 관련 연구도 사무역 및 밀무역에 치중한 면이 많다. 물론 부산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적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공무역적인 면에서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관 관련 연구는 조선후기 일본인과의 전반적인 외교 현안을 살펴볼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구도 외교·생활·무역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 연구구성파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성대왜관·절영도왜관·두모포왜관의 개별연구가 절실하며, 각 왜관들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물론 남아있는 사료가 초량왜관시기의 것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 왜관의 모습이나 생활을 복원하는 것도 다루어진다면 조선후기 부산지역에서의 대일관계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한일관계 사신 분야에서도 통신사 이외에 문위행, 차왜, 송사 등의 사신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들은 통신사에 편중되었다. 통신사의 성격과 관련한 시기구분도 일본 학계의 영향으로 일본 근세시대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시작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내의 기준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 통신사 연구는 문학·문화적인 면에 너무 치우친 면이 있는데, 그보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나 체계 부분의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으로 파견된 사신인 연행사의 연구와 관련해서도 비교연구가 단 한편에 그치고 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상 조선 후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일외교 관련 연

구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경향으로 본다면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는 대일관계 분야에서는 부산 지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살핀 연구들 외에 제시하지 못한 연구들도 많고, 국외, 특히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도 많지만 지면관계상 충분히 다 살피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은 각 분야의 전공 연구자들 몫으로 돌리겠다.